

초대 홍낙선 교육감 취임사



제 1,2 대 홍낙선

재임기간 : 제1대 (1964.2.6~1969.2.3)

제2대 (1969.2.4~1972.2.3)

한국의 민주교육 건설을 위하여 처음으로 시군 단위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것은 1952년이었고 지난 군정기간 중단되기에 이르기까지 교육 자치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연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여 국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야 말았던 것을 회고할 때 새로 발족된 도 단위 교육 자치라는 한국교육사 상 획기적인 전환점에 처하여 경기도 초대 교육감의 중책을 지니게 되었음은 불초 이 사람으로서 그 역사적 사명감을 통감케 합니다.

민주교육 발전에 있어서는 정치로부터의 교육의 중립 교육철학의 자주성 교육 행·재정의 자립 교직의 전문성 등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로써 이것이 보장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자치체가 필요한 것이며 민주적 제도상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제3공화국의 우렁찬 건설보에 따라 발족하는 교육자치는 도민의 교육적 열성과 교육동지의 정성어린 봉사에 기대하는 막중하고 벅찬 시련으로서 민족이 또는 국가가 주는 책임을 지고 받아야 할 최대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조국에는 바야흐로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다짐하는 거국적 혁신운동”의 거창한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분석하며 다음의 몇 가지 행정 시책상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도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첫째로 장학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기간을 통하여 장학행정의 침체성을 지양하고 민주장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시다마는 아직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더욱 각급 학교와 호흡을 같이하는 장학자세를 견지하면서 불합리한 교육신념을 정리하고 향토학교 추진은 계속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불합리한 학교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초적인 교

육수준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그 지역사회에 맞도록 편성 운영케 하고 승공교육, 도의 교육, 직업교육, 과학교육이 철저하게 다뤄질 것이며, 그 기본시책으로서 교원의 연수를 강화하여 자질을 향상케 하고 교육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장하며 교육의 조사연구를 발전시켜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모색케 하고 “학교평가”를 보급 발전시켜 교육개선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키겠습니다.

셋째, 교원들의 신분과 교권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하여 전력을 기우려 일생을 마치는 교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책이 연구될 것이며 인사행정의 체계적인 제도의 확립으로서 인사의 공정을 기함은 물론이려니와 후진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력과 권력에 의한 교권의 유린 교원자신들의 무능과 실수로 이루어지는 교권의 추락은 여하한 방법을 써서라도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리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첫째로, 교육재정이 합리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발족된 교육자치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교육세의 독립, 교육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도 밝혀졌거니와 교육세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교육재원의 확보로 의무교육에 있어서 1,400여 부족교실은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군 교육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상화 될 것이며, 중등교육분야에서는 사학을 적극 육성 발전시킴으로서 국가재정의 팽박과 중등교육 수요의 난관을 해소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학교관리에 있어 우류교실 일소, 부족한 책걸상의 완비, 노후교실의 보수는 해결될 것이며, 정서교육을 위한 학교환경은 정화되어야 하겠고, 도서벽지 및 접적지구 소재교에는 각별한 행재정의 뒷받침이 고려될 것입니다.

문화 체육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첫째로 민족문화 학술의 발전책을 강구하고 고적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조들의 공적을 높이 아끼도록 노력하여야 하겠고,

둘째로, 국민체위를 높이고 학교체육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반 및 학교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육이 금년 9월에 개최될 제45회 전국체전을 우리 인천에서 갖게 되는 바 체육인은 물론 전도민 여러분과 관제 공무원의 희생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제 출발에 있어서 밝힌바 시책들의 해결을 위하여 목전에 닥쳐오는 난관들은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단결 열의 협조로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동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함은 첫째 인화단결입니다.

우리의 난관은 오로지 단결된 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각급 공무원과 교육동지 여러분은 종적 횡적인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고 특히 경기도 및 시군과는 일심동체가 되어 도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둘째, 언행일치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원들이 제3자가 인정하지 않는 자만심에 도취되어 공리공론에만 치중하고 안일주의와 방종에 흐르는 경향이 있을뿐더러 편파적이고 실천력의 부족하다함은 일반국민들이 말하는 바이거니와 우리 경기도 교육동지들은 움직이는 사람, 일하는 교원이 되어 열성적이고 창의적이며 계획적으로 실천적이며 올바른 사리판단을 하는 교육동지로서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훌륭한 지도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은 국민에 대한 충족으로서 최선의 봉사자임을 각자 다짐하는 한편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과 사의 구별이 분명하여야 하며 관기가 확립되어야 하고 의무와 원리가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교원들은 지식인으로서 또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며 학생들의 지도육성 물론 이러니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자치의 제도적 확립과 발전은 우리 도민의 협조에 더하여 교육동지 여러분의 단결된 전체 역량과 창의, 인내, 실천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며, 한국교육사에 빛나는 기록을 부각하게 될 것을 다짐하며 취임사를 마치려합니다.

1964.2.7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 홍 낙 선

제2대 홍낙선 교육감 취임사

저는 초대 경기도교육감으로서의 임기 4년을 대과 없이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불초 이 사람을 제2대 교육감으로 추천해 주신 의장님, 교육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과거 4년간 음양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경기교육을 알뜰히 가꾸어 주신 도내 교육동지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임기에 더하는 앞으로의 4년간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기임을 깊이 명심하고 저에게 부과된 책무가 한없이 무거움을 통감하면서 이 고장 교육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결의로써 성심껏 봉사할 것을 여러분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지난 1964년 시도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4년 동안 우리의 교육자치는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제 그 정지 작업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교육의 양적 성장 실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4년 동안에 국민학교 1,826, 중등학교 747의 학급증가를 보게 됨으로써 교육인구는 무려 70만을 헤아리게 되었고, 각급 학교의 규모나 시설은 팔목할 만큼 확충되었습니다.

취학률 98%를 유지하면서 교실난의 완전 해소, 교육시설의 알뜰한 충실 등 우리의 교육여건은 대망의 70년대를 향하여 지극히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 교육의 질적 발전도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거 10년간 우리 경기교육은 향토학교 건설이란 기치를 내걸고 우리의 모든 교육역량을 이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도내 각급 학교는 향토개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 지역안의 작성활용, 승공관, 향토관 설치 운영 등은 본도의 특색 있는 시책임을 자부합니다. 그 밖에 국기달기 운동의 성공적 추진, 전국 수위를 차지한 학생저축 실적, 연 3년 정상을 차지한 대한교원주최 전국교원연구대회, 전국체전 인천대회에서 획득한 준우승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구협동장학기구를 통한 교육개선 운동의 전개, 각종 학생실기대회를 통한 과학기술교육의 촉진 등 우리 경기교육이 쌓아올린 공은 크고도 높습니다. 이것은 다 관계당국에서 추진한 시책과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때 새삼 감사하며 흐뭇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결코 자랑이나 보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학교 소실, 학원 분규, 경리사고, 교직원간의 불화 등 안 좋은 일도 적지 않게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이제 저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경기교육이 갖추어야 할 모습과 걸어가야 할 방향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향토교육의 근대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 지표를 향하여 우람찬 전진의 계획을 짜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가 힘주어 추진코자 하는 노력 중점에 대해서는 이미 도내 교육장, 중등학교장 연석회의석상에서 제시한 바 있으나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관점을 달리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공도의교육의 강화입니다. 오늘날 공산 침략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의 추락은 우리의 생활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승공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며 도의 없이 우리는 사람다울 수 없습니다. 본도는 임진각을 사이에 두고 직접 북괴와 대치하고 있으며 근간 발생되고 있는 도발행위는 우리에게 일초의 방심도 불허하는 사태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승공도의교육이기에 과거에 형식적이고 미온적이었던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크게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과학기술교육의 혁신입니다.

경제건설에 주체가 되어야 할 인간 개발의 필수요건은 과학기술의 확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시책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의교육과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굳건한 무장 없이는 동양적인 후진성을 극복하고 조국 근대화 과업 수행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역군을 길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탐구정신이 우리 학원에 충만 되도록 지도의 역점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정운영의 향토화입니다.

교육의 기반을 향토에 두고 향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향토의 필요와 과제를 해결하고 향토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간육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입시교육에 급급한 나머지 특정한 교과에 치우치는 변칙운영은 하루바삐 지양시켜야 할 것이며, 어린이들의 과외공부, 부독본 물의는

넷째, 교직사명의 완수입니다.

교원의 사명은 학생지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원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식과,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직간의 확립이요 교원의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교직원의 사기양양 문제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신뢰와 학생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교원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며 교직 성장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교사의 자세가 바로 잡혀주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민주적 집단질서의 확립입니다.

대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교육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한다는 일은 극히 중시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속에서 질서가 무시된다면 그것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요 교육받은 성원의 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자율적인 생활태도를 길러 주어야 하겠으며 이웃과 친화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본도의 장학 중점을 장기적인 전망 위에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의무교육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난점의 하나는 누적된 시설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본도의 교실 사정만 보더라도 소요량의 84.1%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외에도 수리를 요하는 가교실 노후교실을 포함하면 교실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다음은 의무교육비의 증액 문제입니다. 의무교육을 위한 국고 부담은 매년 증대되고 있으나 그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재정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맘모스화 되어가는 학급 규모의 완화, 접적지역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부족교원 확충문제 등 우

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벅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도 의무교육 5개년계획을 수립, 실천 중에 있으며 목표연도인 71년도에는 의무교육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중등교육도 4개년계획을 적극 추진시켜 목표연도인 71년도에는 국민학교 졸업자의 50%, 중학교 졸업자의 60%를 수용하도록 하겠으며 사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전 재정을 견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소비부문의 경비 지출은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불가피한 부문에 중점을 두되 과학교육의 진흥과 생산교육의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력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코자 합니다.

문화교육의 대중화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의 철저와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기하고 교육재산의 정리를 서둘러서 미진된 재산 등기 사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자료의 제공, 도서의 발행, 시군자료실의 운영 지도, 현직교육 및 교육상담의 추진 등 고유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구 확장 및 시책 발전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 전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을 맡은 분 그리고 교육 책임을 맡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정신자세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를 간곡히 당부하니 명심하여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화협동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인화 없이 협동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협동은 민주주의의 바탕입니다. 협동의 길은 서로 이해하고 동조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전송에 가로놓인 슬한 고난을 뚫고 나가려면 오직 우리의 뭉친 힘 그것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단합하고 다음에 지혜를 모읍시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로 뭉칠 때 우리의 집단 역량은 크게 발휘되어서 우리 앞길에는 서광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솔선수범하는 경기교육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교원의 그림자입니다. 교원이 있는 곳에 학생이 있고 교원이 가는 길에 학생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교원은 언제나 자기처신을 가다듬

어야 하겠습니다. 또 교원은 학생의 거울입니다. 교원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이 바로 학생들 마음에 영상됩니다. 이심전심은 교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원은 어디서나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그리고 그 행동이 남보다 앞서는 마음의 자세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에 있는 분들도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부하직원 및 일선학교에 미친다는 엄숙한 사실을 상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기풍을 쇄신함으로써 참신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부정과 비방, 안이와 타성, 의지와 방념 등 낡은 한국의 역사적인 유산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도 심기일전 지금까지 일부에서 지니고 있던 무사안일주의, 매너리즘, 무기력 등 옹지 못함 구습에서 결연히 벗어나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켜 건전한 행정을 하고 명약한 학원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2대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제가 간직한 바 몇 가지 포부와 소신의 일말을 피력하였습니다. 일찍이 대통령각하께서 천명하신 근대화를 위한 인간교육과 생산을 위한 과학교육을 조기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찬 전진을 계속합시다.

인내와 노력 자신과 용기 이것은 바로 교육 근대화의 원동력임을 결심합시다.

끝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각성과 제발,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취임사를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1968년 2월 5일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 홍 낙 선